

外國人 投資상담관 指定

外國人 投資환경 개선 위해

特許廳은 구랍 27일 外國人 投資상담관을 指定 운용하기로 했다.

外國人 投資 관련 고정처리창구를 일원화하고 外國人 投資 환경 개선을 위하여 海外協力 委員會에 의해 議決된 「外國人 投資상담관 指定 운용 方案」에 따라 指定된 상담관은 다음과 같다.

○다 음○

직	위	성	명	비	고
기획관리관		서	정	욱	정
국제협력담당관		최	태	창	부

工所權출원 6만건 돌파

特許 前年비해 35% 증가

우리나라의 연간 工業所有權 출원건수가 6만 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1년동안 출원된 公業소유권은 모두 6만 4천 30건으로 83년의 5만 5천 8백 8건보다 14.7%인 8천 2백 22건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출원된 公業소유권을 권리별로 살펴보면 特許가 8천 6백 33건으로 83년대비 35.0%, 實用新案 1만 4천 7백 65건으로 28.6%, 意匠 1만 5천 8백 69건으로 13.8% 商標 2만 4천 7백 63건으로 3.3%가 각각 늘어났다.

特許廳 廳舍부지 豫算確保

延建坪 4천평, 15億

지난해 11대 定期國會가 끝남에 따라 1985년도 政府의 總豫算이 確定됐다.

이에 따라 特許廳의 1985년도 豫算이 確定되

었는데, 세입 豫算은 지난해와 같은 19億 8千 7百 49萬 2千원이며, 세출 豫算은 올해부터 반영되는 特許廳의 新廳舍敷地買入費등이 包含되어 1984年 豫算보다 19億 9百 94萬 5千원이 증가된 65億 4千 8百 68萬 5千원으로 確定되었다.

특히 관심을 끌고 있는 特許廳의 新廳舍敷地買入費는 延建坪 4,000坪에 대한 15億이 確保됐다.

그리고 設計費는 建築工事費 53億 8千 2百萬圓의 1.63%인 8千 7百 72萬 6千 6百圓이 금년도 廳舍新築費에 包含되었다.

審査 3. 4局長 人事

特許廳의 審査 3局長과 審査 4局長이 구랍 10일자로 新規任命·發令됐다.

審査 3局長 職務代理는 前商工部 基礎工業局 精密化學課長인 工業技正 龐甲淳씨가 審査 4局長 職務代理는 前商工部 基礎工業局 製鐵課長인 書記官 李氣盛씨가 各各 任命 發令됐다.

閔聖根前 3局長은 화학직물분석검사소 所長에, 韓圭完 前 4局長은 직물검사소 所長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韓國, 中共特許 가능

파리조약 加入결정...代理사무소 경유

中共이 세계특허기구에 가입했다고 中共관영 新華社통신이 보도.

이통신은 中共이 세계특허기구 가입신청서를 구랍 19일 이 기구를 관장하고 있는 유엔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 제네바 본부에 제출함으로써 이 기구에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로써 85년 4월부터 출원·심사등 特許업무를 시작하는 中共에 特許를 출원하려는 외국인은 北京專利대리처·上海專利 사무소와 香港의 「中國專利대리유한공사」등 3개대리사무소를 경유, 출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第3回 特許廳 音樂會

本會팀 銅賞차지, 金賞은 管理局팀



特許廳에서 開催하는 第3回 特許廳 音樂會가 구담 15일 第一生命 17層에서 열렸다.

이 音樂會에 參加한 本會 女직원팀(김희옥 · 김순자 · 박영순 · 선은희 · 김문숙)은 「희망의 속삭임」을 불러 영예의 銅賞을 차지했다.

한편 최고상인 金賞은 「사랑」을 부른 特許廳 管理局팀이, 銀賞은 「님이 오시는지」를 부른 企劃管理室이, 人氣賞에는 「크리스마스 캐롤」 3曲을 메들리로 부른 大韓辦理士會팀이 차지했다.

이날 音樂會가 끝난후 洪性佐 特許廳長은 參與意識을 높이기 위해 85年 音樂會에는 課長級 팀과 局長級 이상팀도 參加케 하겠다고 밝혔다.

半導體 256KD램

金星서도 6月 量産

三星半導體통신에 이어 金星반도체와 現代電子에서도 오는 6월과 10월에 256KD램을 각각 量産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나라 반도체산업도 본격적인 256KD램 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업체에 의하면 三星반도체통신에 이어 金星반도체에서도 256KD램의 시제품을 오는 4월 중에 출하하고 6월 부터는 量産에 들어갈 계획이다.

럭키금성 綜合研究團地 준공

美 硏 · 日 히다찌硏에 버금가

럭키금성 그룹이 16일 상오 국내기업 최초로 대규모 민간종합 연구단지를 준공, 2천년대 技術大國을 향한 첨단기술개발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됐다.

李正五 과학기술처장관 등 각계인사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에서 준공식을 가진 럭키금성 제1 연구단지는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첨단기술 연구단지로서 부문별 상호기술협력과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하게 된다.

이 연구단지는 럭키금성그룹내 소재 및 소프트웨어 등 기초연구 분야와 전자 전기 통신분야의 첨단기술을 부문별로 상호 결합하여 연관개발효과를 높이며 상호연계를 통한 공동연구 개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룹의 핵심적연구 단지로 美國의 벨연구단지, 일본의 히다찌연구단지 등 세계적인 민간기술연구단지와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알파 인터페론 製品化

遺傳工學기법으로 國內 처음

第一製糖(대표 孫永禧)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유전공학 技法을 사용, α(알파) 인터페론의 제품화에 성공했다.

관련업체에 따르면 이 회사의 종합연구소는 이달초 본격적인 유전공학기법인 세포배양 기술에 의해 피루질환치료제인 α인터페론 연구의 제품화에 성공, 당국의 허가절차가 끝나는 오는 4월부터 대량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